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4. 1. 28

「사무엘상 열일곱 번째 말씀」

사무엘이 청년들에게

Samuel's Message to the Young

사무엘상 12장 1-15절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 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6.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7.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곳에 살게 하였으나
9.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 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 너희가 압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움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마는
15. 너희가 만일 여호와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와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 베드로전서 1:6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심’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2. 1번의 연장선에서, 이사야 58:11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봅시다.
3.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벧전 1:5).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은퇴식 고별설교에서, 그동안의 업적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워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4).

실패해도, 실수해도, 흠수저여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사58:11)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4절과 15절을 읽고 답해봅시다.

4. ‘죄의 샅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봅시다. 이 질문을 나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샅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들 중에는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4을 읽고 생각을 나눠봅시다.



캔사스중앙글로벌감리교회

Central Korean Global Methodist Church of Kansas